



# 特輯：養鷄政策

◆ 양계정책의 과거와 미래

◆ 양계정책에 대한 제언

◆ 우리가 바라는 양계정책

## 양계정책의과거와미래 오 준 석

농림부 축산국장

양계는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러기에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경영기술과 사양기술의 미숙이 주원인이겠으나, 소규모의 부업양계가 대다수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가에서는 경영기술과 사양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을 뿐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므로 불황기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3~4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그 기간도 짧다. 그리고 수요에 맞도록 생산을 조절하고 육성시험을 통하여 경제성이 맞는 가축을 생산토록 장려하게 됨에 따라 양계업은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경제기반이 안정되지 않은 데다 사양기술도 발달도상에 있어 수요와 공급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경기 변동도 잦았다.

그러나 양계업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병행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양계업도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날로 향상되는 만큼 양계산물의 수요도 날로 증가될 것이며, 양계업도 더욱 발전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달의 우리나라 양계업을 더듬어 볼 것 같

으면 6·25동란<sup>2</sup>이후와 61년 이후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전후 회복기에는 잃었던 가축을 다시 찾아야 했으며, 그러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축종과 품종의 구별없이 농가의 양축을 장려해야 했다.

그러나 양계업은 다른 업과 달라서 농가에서 적은 자본으로 쉽게 착수할 수 있고 경제력에 맞추어 사양규모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자금회전도 빠르고, 유휴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으므로 농촌에서는 대부분 양계를 부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으며 부업양계는 점차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품종의 갱신없는 막연한 재래종만의 사육을 장려할 수 없었으므로, 시험장으로 하여금 우량한 계통의 종계를 시급히 확보케하고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었다. 59년도에는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우량한 종계를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종래의 재래종 보다도 훨씬 능력이 우월한 개량종이 농촌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특히 부업양계농가에서는 “레그혼”, “햄프샤”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이렇게 되어서 축산업에는 61년을 맞아 비로서 서광을 받게 되었다고 보겠다.

우리나라의 농업형태는 경종농업이 주였으며 축산은 그에 예측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업종에 비하여 미진하였고 부업형태를 탈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업근대화 및 농공병진정책 등의 시정방향으로 농촌부흥을 위하여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후진한 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68년도에는 축산진흥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축산인의 해외진출이 많아져서 코도로 발달된 선진국의 양계기술과 사양기술을 익혀 오게 되었고, 기기에 보조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의 양계업은 부업형태에서 전업 내지는 기업형태로 점차 전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량종계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어 공급은 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종계의 도입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아래 표 I 은 시험장과 종축장의 종계 생산수와 공급수를 보인다,

<표1>

1) 시험장

년 차 별	생 산	공 급
65	113,760(수)	101,867(수)
66	102,115	95,200
67	—	3,390
68	11,478	5,909

2) 종축장

년 차 별	생 산	공 급
65	429,038(수)	235,233(수)
66	253,378	176,099
67	96,522	96,993
68	187,288	138,533

그리하여 66년도부터는 민간인의 종계수입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자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해마다 많은 외국의 우수한 종계들이 도입되었다.

<표2>

<원종계 도입실적>

품 종	수입국	67년도		68년도	
		도입 수수	외액 (\$)	도입 수수	외액 (\$)
Babcock	일 본	6,095	10,500	22,975	41,803
Warren	미 국	3,450	4,830	14,980	49,784
Pilch	일 본	8,545	6,000	21,985	22,283
Welp-line	미 국	10,180	16,000	17,330	27,210
Shaver stacross	캐나다	13,675	20,000	4,600	4,489
Honegger	일 본	2,860	5,000	10,560	22,440
H&N-Nick-chick	미 국	3,300	6,000	6,600	11,200
Goto	일 본	5,435	4,700	3,650	3,000
Kimber	미 국	5,500	12,000	8,800	22,719
Demler	“	1,100	1,300	6,160	7,271
Ideal	“	550	750	2,250	3,419
H&N Nichol	“	4,600	3,000	2,120	1,620
Cornish	“	2,300	4,500		
Colonial	“	1,220	2,200		
Cobb	“	5,750	4,500	9,200	9,300
New Hampshire	“	300	450		
Indian River	“	2,300	2,260		
Golden Sex link	“	1,550	1,600		
Enyer	일 본	2,000	1,470		
Rock	“	100	20		
AA Vantress	“	25,000	5,250		
Goto Broiler 3	“	15,000	3,300		
Kimber K-44	“	15,000	3,450		
Hyline	미 국	2,250	3,616	10,685	36,319
Arbor Acres	“	8,700	7,500		
Dekalb	일 본	600		6,750	12,600
Stone	“			6,820	11,880
Shaver	캐나다			19,460	29,588
Keystone	미 국			1,100	550

● 양계정책의 과거와 미래

Garber	//		4,000	5,205
Princess	//		2,200	2,925
W-220 Broiler	미 국		2,100	1,938
Hares Barred rock	//		4,10	8,118
Aber Acres	//		24,300	28,243
Agriphan	//		1,150	1,061
H&N Meat bird	//		1,150	983
MartinJB-1	//		900	1,084
Colonial true line	//		1,500	2,565
합 계			222,235	375,136

그리고 68년도는 축산진흥의 첫 해이자 양계업의 일대 시련기 였다고 볼수 있다. 닭은 다른 가축과는 달리 고열량, 고에너지의 사료를 필요

로 하고 있으며 개량종일수록 그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대다수 부업양계가들은 거의 전부가 단미사료를 이용하거나 2~3종의 강류사료만을 자가배합해서 사육하고 있어서 닭이 필요로 하는 열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축산진흥책은 단미사료 위주의 사육방식을 지양하여 고열량 고에너지 사료인 배합사료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68년 7월에는 단미사료의 공급을 통제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단미사료의 시중판매를 중지하게 됨에 따라서 잠정적인 사료파동을 유발하게 되었으나, 닭의 사육수는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같이 급증하게 되었고, 양계산물은 과잉되어 68년 하반기부터 69년도 초반기에 이르기까지 예년에 볼수 없었던 양계 불경기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표3>

년차별 규모별 사육수수

년차별	규모별	10수以上	10~50수	50~100수	100~500수	500~1,000수	1,000수이상	계
64	사육호수	1,188,317	128,478	6,963	4,171	436	178	1,328,543
	사육수수	5,913,152	2,278,637	488,583	885,629	303,225	412,704	10,281,930
65	사육호수	1,161,294	141,119	9,795	7,263	715	293	1,320,425
	사육수수	5,990,042	2,578,584	727,224	1,524,935	482,912	588,915	11,892,612
66	사육호수	1,102,275	166,764	15,466	11,923	893	328	1,297,649
	사육수수	5,808,006	3,134,637	1,107,581	2,467,181	607,853	882,465	14,007,723
67	사육호수	1,058,261	194,299	22,064	16,505	1,256	526	1,292,942
	사육수수	5,786,869	3,819,256	1,628,790	3,530,645	893,902	1,138,501	17,079,169
68 (6月末 現在)	사육호수	856,382	435,341	48,784	33,446	2,779	1,214	1,377,946
	사육수수	5,284,584	9,450,229	3,547,797	7,249,898	1,945,551	3,364,633	30,842,692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양계업의 발전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몇몇 사람의 실력자가 우수한 양계경영을 한다고 해도, 또는 능력이 우수한 우량종계를 다량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양계업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축산물은 국민생활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가산업이 발전되고 국민경제가 향상됨에 따라 수요는 점차 증가 될

것이므로 그 수요에 충족될 수 있는 공급량을 생산할수 있도록 특히 양계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연구노력해야겠으며, 소규모의 부업양계에서 대규모의 기업양계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위 표3에서 본 바와같이 68년도에는 67년도에 비해서 약 3배에 해당되는 종계가 도입되어 약 375,000달러의 외화가 유출되었으므로 앞으로 원종계의 지속적인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히 판단해볼 때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겠으나 언제까지나 도입에만 의존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속히 종계를 개량하여 우량한 순계(Pure strain)를 확보하고 생산해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는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같이 연구하여 종계의 자급자족이 있는 날 진정한 축산발전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69년도부터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상의 감면의 혜택(개인 소득세는 69~75년까지 7개년 간은 100%감면, 76~78년까지 3개년간은 50% 감면해주며, 취득세, 재산세 등 법인세에 있어서도 69~78년까지 10개년 간은 100% 면세해준다는 조세 감면법이 공포된)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더욱 분발하여

후진한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앞으로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류의 수요량을 양계산물로 대체공급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68년도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실적과 69년도 계획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년 도	물 량	금 액
68년	중 계 5,000수 산란계 331,882수	114,539,000원
69년	중 계 5,000수 (5,000수) 산란계 328,600수 (297,168수)	109,391,000원 (62,698,000원)

※ ( )는 8월말 현재 실적

## 양계정책에 대한 제언



오 세 정

건국대학 축산대 교수

### (一) 서 론

우리나라 양계업계는 최근에 와서 다른 축산 분야에 비하여 수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많은 향상 과발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이것은 정부에서 무축농(無畜農)을 유축화(有畜化)시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축산진흥 시책의 결과라고 하겠지만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악전 고투하는 노력의 소산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공과(功過)를 논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욱 건실하게 육성 발전 될 것이며,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국가경제가 부흥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견(愚見)을 기술하고자 한다.

국민의 생활이 영세하고 사회가 항상 불안하며 국가 경제가 빈약한데다 정부의 시책도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일관성없는 행정시책으로 양계업자는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다고 하

였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면에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말고 또 수자적인 증대가 곧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지양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서 이것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있는 시책의 지포가 제시됨으로서 영세한 양육업자들은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할수 있고 자제와 조절을 하여 진실하게 육성된다고 본다.

### (二) 육종개량 사업의 적극화 방안

우리나라 닭의 사육수는 약 30,000만수나 되며 산란수는 평균 125개에서 목표를 145개로 되어있고 육계(肉鷄)는 사료 요구율이 3:1(50일에 700g생산)에서 2.5:1(70일에 1.4kg) (농림부 축산진흥 계획서에서)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바 이러한 수치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으며 또